

# “조기정상화 안되면 2008년까지 파행”

일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시대가 열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퇴장과 아베 체제 출범은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베 관방장관은 20일 지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총리의 후계자로 공식 선출된 후 26일 신내각을 출범시킬 전망이다. 문화일보는 19일 일본 아베 시대의 출범과 한·일관계전망 을 주제로 한·일 양국 소중 학자 토크좌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좌담에서 ‘한·일 양국이 내년 상반기 전까지 정상회담 등 지속적인 관계회복에 나서지 않으면, 양국간의 미지상적 관계회복은 2008년이후에나 시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베 치기총리는 일본의 미국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대(對) 아시아 외교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아베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우파고 헌법개정론자인 점에서 갈등대상 국면도 있다’고 밝혔다.

—사회=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는 아베 시대 도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아베 체제 출범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김정수**=고이즈미 총리가 가지고 있던 미국 편중 외교, 아시아 경외외교에서 아베 치기총리가 아시아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가 하는 기대감을 사립이다. 한편으로 아베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우파고 헌법개정론자인 점에서 갈등대상 국면도 있다.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다.  
**▲박철희**=일본 헌정 체제에 안정성을 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가 아베 시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고이즈미의 신보수주의적 개혁노선을 계승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낫다.

### ◆참석자

- ▲**김정수** (44)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도쿄대 정치학 박사, 전 교토대 법학 부 책임연구원.
- ▲**박철희** (43)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전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 ▲**기무라 간** (木村幹·40) 교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교토대 법학박사, 현대한국조선학회 회원.
- ▲**사회**=이민숙 정치부 차장



김정수 일본연구센터장

는 게 메시지만이 아니라, 될 주장은지가 문제다. 아베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고이즈미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역시 방백하지 않다.

—사회=경외외교와 외교부가 아베 시대에 여러 기대를 걸고 있다. 다음주 뉴욕에서는 한·미·일 대북 3자 협의회가 재개되고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때 한·일정상회담도 가능할 듯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베 체제출범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대가 썩사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가.

▲**박**=양쪽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나 일련은 평정하 높다. 한국도 고이즈미 때처럼 대화없는 시간이 오래가는 건 부담이고 아베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만들려는 필요성이 있다. 아베로서도 일본의 아시아 외교 재건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다. 하지만 양국이 서로 바라보는 부분이 달

## 아베, 脫美시도 아시아외교에 관심 가능성 독도문제엔 유연성, 야스쿠니는 모호성 견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패할때 야스쿠니 갈수도

라 쉽지 않다.  
 —사회=한국은 아베 체제 출범에 앞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시인을 보내고 있는 건데.

▲**기무라**=아베를 지지하는 일본 여론은 고이즈미 지지층보다 더 민족주의적이다. 아베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어려운 상대인 야스쿠니를 갈 수도 있다. 한·일관계, 특히 중·일관계에서 연 말이나 내년 2, 3월까지 아무 성과가 없으면 고이즈미보다 우익적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김**=일본 매스컴 등에서 제기되는 아시아 관계개선 요구는 주로 한·일관계보다 중·일관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아베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내년 7월까지 애매한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일관계가 개선되면서 한·일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일관계는 대북정책에서 큰 인



박철희 서울대교수, 김정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기무라 간 교토대 교수(왼쪽부터)가 19일 문화일보 편집국에서 일본 아베 신조 체제 출범과 한·일·일관계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있다.

식자가 걸림돌이다. 아베는 ‘주장하는 외교’를 말하는 사람이 한국도 더이상 조종한 외교를 안한다고 하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박**=아베로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외교면에서 관계하기 쉬운 상대다. 한국은 의외로 의견차가 조정가능한 점이 있고, 서로 전략적으로 협력을 인식해가고 있다. 아베는 야스쿠니 문제에서는 전략적 모

호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서도 안 되고 안 된다. 통해 방사능으로 공동조사는 우리가 수습했다.  
 ▲**김**=아베가 아닌 일본 정부 시스템에서 독도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거기에 갈등의 씨앗이 존재하고 대북 문제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풀리지만 불신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은 성과도출이 쉽지 않다.  
 ▲**기무라**=일본 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나 기대가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중·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선 그런 노력

이 없다고 일본 정치자들은 생각한다. 마치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이즈미 정부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일본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정부를 기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일본은 내년 7월에 선거가 있고, 한국은 내년 말에 대선이 있어 시점이 맞지 않다.  
 ▲**박**=일본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 정권은



박철희 교수

1년6개월 남았다. 우리도 아베보다 유연한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베체제는 아무리 짧아도 1년이상 간다. 바뀔까봐 면 노무현 시국은 아베의 상대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김**=한·일관계는 독도문제도 있지만 대북정책이나 대미인식, 대중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남북 좌파정권 아니냐고 매도하고, 한국 사람들은 고이즈미를 국내정치 개혁보다는 우파정서에 의해서 정치세력을 모으는 인물 정도로 여긴다.  
 ▲**박**=한국이 일본의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일본은 자학사관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분명인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동시에 일본도 우리의 수정주의적 대북관을 이해 못한다. 냉전이 한반도에서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기무라 간 교수

개정해 군국주의 성향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기무라**=일본은 민주시민이 힘을 지닌 시대가 됐다. 일본 시민들은 세습중역이나 정부예산 확대에 민감하다. 민족주의적 경향은 강화되었지만 군사대국 등은 국민들의 세부담 때문에 회피할 것이다.

▲**박**=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진전될 것이지만 하드 파워를 늘리려고 소프트 파워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라 주먹가들이 매력적인 남자가 돼야 한다. 주변국들이 호감을 주는 친화력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김**=한·일관계는 실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일관계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내정간섭이니까.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는 관점을 정해야 한다.

정리=김종태기자 strat01@munhwa.com

## “한·일관계 악화는 양국정상 탓이다”

### ■좌담회 참석자들 의견 제기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국민감정 때문이 아니라 양국 정상 탓이다.”  
 19일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아베시대 출범과 한·일관계전망좌담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간의 갈등이 한·일관계악화의 핵심원인이 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철희 교수는 “정부 정책이 상호 이견도 있지만 그것은 조율이 가능하다”며 “정상들이 한·일관계를 나쁘게 만들었지, 국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수뇌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풀어나가지 한·일관계의 원인을 국민감정이나 여론, 환경 탓으로 돌리려한다면 책임 회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 대통령과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차기총리가 그들은 정신으로 관계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좌담에서는 ‘한·일 정상이 양국국민들의 생각만큼 못 따라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이 무차별사태를 맞게 되면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는 축소되고 있으나 양국정상간의 상호불신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 아베 저서엔 한일관계 “낙관한다” 한단락 뿐

김정수 센터장은 “정부내 특히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 사이에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독도 주변 해양 해역 조사를 둘러싼 한·일갈등을 예로 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대일 정책을 불사했다는 의지까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미사선 출발을 강행한 것은 정상간의 상호불신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한편 이날 좌담에서는 아베의 대한 친근감도 화제가 됐다. 기무라 간 교수는 “아베는 야마구치 시모노세키(시모노세키)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야마구치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그곳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꼭 좋은 인상을 품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쨌든 관심 자체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능남조로 “고이즈미 총리가 왜 미국을 중시하느냐고 하면 요코시가 출신이기 때문이고, 요코스가 왜 미국 국가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일본사람들이 가끔 웃으며 한다”고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아베의 저서 ‘아름다운 국가로’를 예로 들면서 “아베가 실제 정책에서 얼마나 한국에 관심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아베에 이 책에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낙관한다”고 짧게 한 단락으로 기술했지만 중·일관계에 대해선 한 장을 할애해 자세하게 구상을 내비쳤다. 박 교수는 “아베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정책으로 표출될지는 미지수지만 한국에 대한 그의 정서는 이렇듯이다”고 말했다.

김종태기자